

AVING News 기자 취재 준칙

에이빙 뉴스(AVING News)? 제품 전문 뉴스 미디어

- 취재정책: 3P(Product, People, Place) 중심, 비주얼(영상, 사진) 중심, 현장 중심
- 보도정책: 제품 중심 보도, 비주얼 보도, 글로벌 보도
- 보도제한: 학원, 병원, 보험, 분양, 미확인 기업 할인행사 등(취재는 자유, 보도는 제한)

따라서, AVING은 제품(상품) 뉴스/TV 현장 직접 취재 전문 미디어이므로 상품 및 제품 취재를 하는 사람을 "AVING 기자"라고 하며, 기자활동을 정상적으로 하는 "기자"에 한해서만 기자 id 및 이메일을 사용 및 지속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. 기업에서 배포하는 보도자료(기업이 제공한 보도사진등) 만을 기사화하는 사람은 "기자"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.

* 에이빙 기자 자격 유지 조건

내용	상근 기자	파트너 기자	해외 파트너 기자
기사 보도 의무 (격주간 기사 수량 측정)	10개/주간	2개/주간	1개/주간
정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스폰서/출입 기업의 세일즈(이벤트, 할인) 기사는, 각 기자 본인의 주간 뉴스 취재 분량의 20%를 초과할 수 없음 • 논스폰서 기업의 보도자료 기사는 1기업 당 3개월에 1개 현장 취재 뉴스에 한 해 가능 (삼성, 엘지 등의 국내 대기업 or 애플 등의 글로벌 기업은 가능) 		
보도/수정/삭제 정책 데스크 마감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오후 6시 이후 보도 불가(사전 협의 및 본부장 확인 완료 기사 가능) • 보도후 사진 임의 수정 불가 >> 데스크 승인후 가능 • 기사 본문 수정→해당 내용 메일 bad@aving.net 송부 • 기사 삭제→해당 내용 메일 bad@aving.net 송부, 데스크 담당/본부장 확인 완료 후 삭제 진행(편집자 유선 접촉 불가) 		
경고 조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보도 의무 수량 미달 및 정책 1차 위반시 → 경고 • 2차부터는 사전 경고나 통지없이 데스크에서 즉시 조치합니다. 2차 위반시→1주일간 아이디 정지(정지기간중 기사는 편집자에 요청> 편집자 보도) 3차 위반시→즉시 아이디 정지 4차 위반시→기자 자격, 이메일, 아이디 삭제 • 2/3차 위반시 사유 발생 내역 서면으로 제출 후, 데스크 인정시 아이디 복구/불인정시 3개월 아이디 정지 		